

# 기녀, 汧國夫人이 되다

—唐 傳奇 <李娃傳>에 대한 또다른 독해—

崔 眞 娥\*

— <目 次 —

- |                   |                 |
|-------------------|-----------------|
| I. 머릿글            | III. 은폐된 李娃의 욕망 |
| II. 남성서사로서의 <李娃傳> | IV. 나가며         |

## I. 머릿글

웬일일까

맑은 바람결에 풍기는 기이한 향내,

아리따운 선녀가

무지개 치마 찰찰 끌고 왔구나.

(怪得清風送異香, 娉婷僊子曳霓裳.)<sup>1)</sup>

이 시는 중국 唐代의 어떤 시인이 아름다운 妓女의 모습을 표현한 시이다. 시 속의 기녀는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고 마치 선녀처럼 무지개 옷을 펼쳐입고 있다. 시인은 기녀의 아름다움을 天上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녀에게서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만일 이토록 아름다운 여성에게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이 존재한다면 어떠할까? 또한 선녀같은 그녀의 모습이 사실은 그녀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면 과연 어떠할까?

\* 梨花女子大學校 중문과 강사

1) 孫棻, 《北里志·王團兒》.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당대의 한 기녀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름은 李娃이고 범절과 행실이 뛰어났기에 훗날 汧國夫人<sup>2)</sup>이라는 높은 지위에 봉해지는 여성이다. 유교적 신분질서가 엄존했던 그 당시 이와 같은 일개 기녀가 건국부인이라는 지위로 신분상승된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다. 기녀는 종신토록 기녀의 신분일 수 밖에 없었으며 관료인 남성과 맺어지더라도 그의 정식부인이 될 수는 없었음은 당연한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기녀인 이와가 신분의 상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리고 그녀에 대해 당나라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 이제 본 논문에서는 건국부인이 된 기녀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그녀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나가고자 한다.

## II. 남성서사로서의 <李娃傳>

妓女 李娃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唐代의 서사문학인 傳奇이다. 전기는 ‘기이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건을 전한다’는 의미의 서사로 그 주된 작자는 士人 계층이다. 당나라의 사인계층은 科擧시험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계층이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관료계층이거나 혹은 관료가 되기를 준비하는 계층이었고 문화적으로는 문자를 운용할 줄 아는 소수집단에 속하였다. 또한 그들은 모두 남성이며 유교적 덕목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전기는 유교적 윤리관념에 입각한 남성작자에 의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에서 서술되는 사건들은 모두 남성 시각의 교정을 거친 서술이 된다. 곧 전기에는 남성서사의 장치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唐나라는 공을 세운 벼슬아치의 부인에게도 훈작을 수여했는데 汧國夫人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전기에 있어서 또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각 작품의 시작과 결말 부분에 작자의 논평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평은 종종 작품을 서술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작자의 의견, 혹은 작품 전체를 개괄하는 작자의 총평 등의 형태로 되어있다. 논평의 형식은 歷史書의 서술형식을 모방한 형태인데 이는 작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공식성, 객관성, 윤리성 등으로 표상되는 남성적 질서를 작품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작용을 맡는다.

이같은 남성작자의 논평은 전기 <李娃傳>의 시작과 결말 부분에도 당연히 부가되어있다. 그 중 시작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주인공 이와의에 대해 소개한다.

견국부인 이와는 장안의 기녀이다. 그녀의 범절과 행실이 대단히 뛰어나서 칭찬할 만한 것이므로 감찰어사 백행간이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汧國夫人李娃, 長安之倡女也, 節行瓌奇, 有足稱者, 故監察御史白行簡爲傳述)<sup>3)</sup>

‘감찰어사’란 <이와전>을 기술한 남성작자의 벼슬이름이고 남성작자의 이름은 ‘백행간’이다. 이러한 서두의 형식, 즉 작자가 작품을 서술한 이유를 설명하고 주인공의 신분에 대해 첫부분에서 밝히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서술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같은 서두에서의 설명은 앞으로 전개될 남성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강조하여 서사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어서 <이와전>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남성주인공이 등장한다. 남성주인공의 이름은 작품에 밝혀져 있지 않고 다만 滎陽公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生’이라는 용어로 설정되어있다.

그 당시 명망높은 집안의 아들인 생은 과거를 보기 위해 당나라의 수도

3) 白行簡, <李娃傳>.

인 長安을 향한다. 평소 생의 실력으로 보건대 그의 과거급제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장안에 도착하여 과거를 준비하던 어느 날 생은 우연히 절세의 미인을 보고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였다. 그 후 자나깨나 그녀를 잊지 못하던 생에게 친구들은 그가 본 미인이 바로 장안의 名妓인 이와의임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와의라는 기녀는 수백만 금을 들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기녀라고 부연하였다. 하지만 이와의에게 반한 생은 자신이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모든 돈을 털어 이와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생과 이와는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렇기 지내기를 1년 쯤 했을 때, 생이 가지고 온 자금은 모두 바닥이 나버렸고 이와는 자신의 假母, 즉 담당포주와 계약을 꾸며 생을 떠돌려 버리고 종적을 감추었다. 이후 이와의에게 버림받은 생은 폐인이 되었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 뒤 상여노래를 부르는 상여꾼 노릇을 하게 되었다.

생의 상여노래는 청아하고도 구슬퍼서 그 당시 장안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가 상여노래 부르는 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바로 그때 생의 집안의 하인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인은 소식이 끊기고 죽은 줄로 알았던 도련님이 상여꾼 노릇을 하며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생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과거급제는 커녕 상여꾼 노릇을 하는 아들의 행색을 보고 생의 아버지는 가문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생을 채찍으로 때려 내다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번 버림을 당한 생은 길거리에서 걸식을 하며 죽어가던 어느 겨울 날, 우연히 이와의에게 발견되었다. 걸인이 되어 죽어가는 생을 본 이와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생을 집안으로 들였다. 이와의의 가모가 반대하자 이와는 가모에게 큰 돈을 주어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가모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로부터 이와는 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렸으며 생이 과거공부를 하도록 도와서 드디어 생은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생에게 자신은 이제 조용히 떠나겠다고 하며 훌륭한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기를 당부하였다. 이 말을 들은 생은 이와의를 만류하였으나 이와는 끝내 생의 곁을 떠나고자 하였다. 한편 생의

아버지는 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사실과 기녀 이와의 생을 도운 전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와의 헌신적 뒷받침과 그녀의 굳센 절의에 크게 감명받은 생의 아버지는 이와를 정식며느리로 맞이하였다.

이와는 생의 정식부인이 된 후, 시부모를 극진히 받들었고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喪主의 도리를 다하였다. 이러한 이와의 행동에 하늘도 감격하여 영지가 초막에서 자라고 벼 한 이삭에서 세 송이의 꽃이 피는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었고 흰 제비 수십 마리가 이와의 사는 집 처마에 집을 짓기도 하였다. 그 후 이와의 남편 생은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이와는 아들 넷을 낳아 그들을 모두 고위 벼슬아치로 길러 내었으며 이와는 건국부인에 봉해지는 영예를 얻었다.

기녀 이와의 건국부인이 된 것에 대해 작자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오호라! 한갓 기녀의 신분으로서 범절과 행실이 이와 같으니 비록 옛날의 열녀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구나.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嗟乎! 倡蕩之姬, 節行如是, 雖古先烈女, 不能踰也, 焉得不爲之歎息哉!)<sup>4)</sup>

<이와전>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기녀 이와는 작자에 의해 烈女 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작자는 위의 논평에 뒤이어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원 무렵에 나는 농서사람인 이공좌와 더불어 굳센 지조를 지닌 여성들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국부인의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공좌는 손뼉까지 치며 이 이야기에 놀라하더니 나에게 건국부인에 대한 傳을 지으라고 말했다.(貞元中, 予與隴西公佐話婦人操烈之品格, 因遂述開國之事, 公佐拊掌竦聽, 命予爲傳.)<sup>5)</sup>

4) 같은 책.

5) 白行簡, <李娃傳>.

위의 내용은 <이와전>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작자에 의해 <이와전>이 서술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이와전>은 백행간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膾炙되던 사실을 백행간이 자신의 동료인 李公佐의 권유를 따라 서술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와 행동, 이와가 언급한 말, 그리고 생과 혼인한 후의 이와와 행적 등은 모두 작자에 의한 언술일 가능성이 크다. 그 뿐 아니라 작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권유를 받아 작품을 서술하였기에 작품 속에는 이공좌와도 같은 ‘예상된 독자’<sup>6)</sup>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전>을 남성적 지식이 개입된 서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이와전>과 같은 전기가 당나라 때에는 과거급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당나라 시기의 과거시험은 시험관이 답안지에 쓰여진 응시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의 응시자들은 시험 직전에 자신이 지은 시나 문장 등을 시험관에게 미리 보여주고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습속이 있었으며 이같은 청탁용 문장을 ‘行卷’ 혹은 ‘溫卷’<sup>7)</sup>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청탁이 쇠도하게

6) 수용미학에 의하면 작자는 작품을 창작할때 세 가지 유형의 독자를 염두에 둔다고 하였다. 첫째는 실제로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독자이고 둘째는 가상독자, 즉 작자가 자신의 글을 읽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독자이며 셋째는 이상독자,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모든 뉘앙스를 입증하는 독자이다. 이러한 독자유형에 의거하여 <李娃傳>의 독자를 설명한다면 위의 세 가지 유형에 모두 들어맞는다. 즉 <이와전>의 독자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예상된 독자’가 되는 것이다. ‘예상된 독자는 독자 스스로가 작자의 창작과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작자의 예상과 독자의 반응이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용미학의 독자분류에 대해서는 박찬기 외 지음, 《수용미학》(서울, 고려원, 1992), 61쪽을 참조.

7) 魯迅은 「문학사의 질문에 답함」에서 行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대에는 시문으로 과거시험을 치렀지만 사회적인 명성도 아울러 보았기에 선비가 서울에 가서 과거시험에 응하게 되면 반드시 명사에게 뵙기를 청하고 글을 바쳐 칭찬해 주기를 바랐으니, 이 시문을 행권이라 한다. 시문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보고싶어 하지 않자 어떤 사람은 전기문을 사용하였다.(唐以詩文取士, 但也看社會上的名聲, 所以士子入京應試, 也須豫先干謁名公, 呈獻詩文, 冀

되자 응시자들은 뭔가 더 눈에 띄는 문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바로 <이와전>과 같은 전기가 ‘행권’, ‘운권’으로 성행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와전>과 같은 서사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이와전>에 반영된 작자의 의식이 작자 개인의 창작의식만은 아니며 오히려 당대의 남성지식인 계층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전>을 읽는 독자들, 즉 당대의 남성지식인들은 남성주인공이 과거에 급제한 후 이화가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남성주인공을 떠나려 한 부분에 특히 공감하고 찬사를 보냈다. 이화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당신의 본 모습을 회복시켜 놓았으니 당신을 도와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어요...당신은 마땅히 명문가와 혼인을 하셔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세요. 중국이든 외국이든 혼인이란 것은 낮은 상대를 택하여서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에요. 그럼 몸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떠나겠어요.”(“今之復子本軀, 某不相負也.....君當結媛鼎族, 以奉蒸嘗. 中外結構, 無自驕也. 勉思自愛. 某從此去矣.”) 8)

이렇듯이 이화는 상대남성을 뒷바라지하여 성공시키고도 전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남성을 돕지만 남성에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여성, 그것은 곧 당대 남성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여성이었다. 게다가 이화는 미모까지 갖추었으니 그들의 이상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9)

其稱譽, 這詩文叫做‘行卷’. 詩文既濫, 人不欲觀, 有的就用傳奇文.)”

8) 같은 책.

9) 俞汝捷 著, 《仙鬼妖人 - 志怪傳奇新論》(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2), 149-150 쪽에서는 唐나라 남성이 선망한 여성의 조건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미모와 재주를 갖추어야 함이고, 둘째는 쉽게 유혹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는 한 남성에 대한 충정을 지녀야 함이다. 또한 네째로는 남성의 사회적 출세를 도와야 하고, 다섯째는 남성에게 버림받아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조건에 의할 때 李娃는 다섯가지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서사문학사상 전기 <이와전>의 인기는 당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건국부인이 된 기녀 이와의 이야기는 白話소설로 혹은 회곡으로 개편되면서 독자들의 끊임없는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와가 보여준 덕목들, 즉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 남성에 대한 진심어린 보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등에 대해 끊임없이 감명을 받고 그녀가 건국부인이 됨에 마땅하다고 인정하였다.

### Ⅲ. 은폐된 李娃의 욕망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남성서사 <李娃傳>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남성서사 속의 李娃는 범절과 행실이 뛰어난 부인이었다. 개과천선한 그녀가 보인 모든 행동은 당시 사회의 판단기준에서 볼때 매우 타당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타당성은 그녀의 신분이 기녀가 아니라 고위관리의 정식부인이자 汧國夫人의 칭호를 얻기에 조금의 어색함이나 어긋남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몇 가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기녀 이와는 남성주인공인 ‘生’을 우연히 만난 순간에 정말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일까? 이와는 오직 남성주인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력을 다한 것일까? 이와가 정말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연속되는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남성서사인 <이와전>의 行間을 탐색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남성의 서사 속에 숨겨지고 은폐된 부분을 찾는 것이며 서사의 결들과 주름을 헤집어 내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는 비록 <이와전>이 남성작자의 시각에 의한 교정을 거쳐 서술된 서사일지라도 그 속에는 남성의 손에 의해 채 말소되지 못한 흔적, 혹은 누락된 부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그것은 마치 펜을 푹푹 눌러 종이에 글을 쓴 뒤에 다시 그 글을 삭제하더라도 종이의 뒷면에는 서술자가 원래 기술하였던 글의 자취들이 남겨진

것과도 같은 이치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남성서사 <이와전>에 숨겨진 이와의 진짜 이야기를 再構하려는 작업은 남성서술자에 의해 은폐된 여성주인공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자 여성주인공의 진실된 욕망과 맞닥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했듯이 작품 속 어디에도 여성주인공으로서의 이와의 욕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남성서술자의 목소리는 이와가 상대남성을 속여서 내쫓은 일에 대해서 추궁조차 하지 않는다. 이와의 행위는 지난날의 과오를 뒤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쉽게 마무리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주인공과 재회한 뒤 이와의 돌변한 행위는 '개과천선'이라는 남성서술자의 표명으로 덮어져 버린 채 급변한 그녀의 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졌다.

그렇다면 이와는 진정으로 남성주인공에게 무한한 동정을 느꼈으며 진정 그 때문에 개과천선한 것일까? 물론 <이와전>에 서술되어 있는 바대로 이와는 한때 자신과 함께 했던 남성의 영락한 모습에 대해 동정과 후회의 감정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이와의 감정은 상대남성을 뺏바라지하는 순수한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와는 이미 남성주인공과 1년에 걸친 동거를 경험한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상대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상태였고 그를 감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와전>의 내용 중에는 이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 남성주인공에게 그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있다.

“이와는 자못 너덕한 부자야. 일전에 그녀와 동침한 자는 대부분 귀족 부호들이었으므로 이와가 얻은 재물은 굉장히 많다네. 그러니 수백만의 자금이 없이는 그녀의 뜻을 움직일 수 없을 걸세.”(“李氏頗贍 前與通之者多 貴戚豪族, 所得甚廣. 非累百萬, 不能動其志也.”)<sup>10)</sup>

이 대목에서 보여지듯이 이와는 본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10) 白行簡, 앞의 책.

는 기녀였다. 이는 곧 이와가 세상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순진하기만 한 여성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녀는 오랜 기녀생활에 의해 남성을 다룰 줄도 알았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줄도 알았던 여성이었다.

唐나라 시대 이와와 같은 기녀는 젊어서는 假母 밑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모노릇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직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남의 첩이 되는 것이 기녀의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러한 기녀에 대한 상황은 唐代의 기녀에 대해 서술한 동시대의 서사물인 孫棻의 《北里志》<sup>11)</sup>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녀의 어머니는 대부분이 가모이다. 이 역시 기녀 노릇을 하다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기녀들은 모두 가모의 성을 따랐으며 서로 간에 동생, 언니로 불러서 차례를 매기었다. 기녀들은 모두 서른 안쪽의 나이였다. 가모들에게는 지아버가 없었는데 가모 가운데 매우 늙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지방에서 파견한 장군들을 주인으로 모셨다.(妓之母 多假母也. 亦妓之衰退者爲之.....皆冒假母姓, 呼以女弟女兒爲之行第. 率不在三旬之內, 諸母亦無夫, 其未甚衰者, 悉爲諸邸將輩主之.)<sup>12)</sup>

《북리지》의 내용에서도 언급되듯이 이와가 나이 먹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가모가 되거나 혹은 지방에서 파견한 장군들의 첩 노릇을 하는 일이었다. <이와전>의 서술에 의하면 이와가 남성주인공과 재회했을 때 이와의 나이는 이미 20살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와가 자신의 가모에게 “양녀가 된 지 올해로 20년

11) 唐代의 北里는 고급 기녀들의 집단 거주지로 長安城 남쪽인 平康里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李娃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있어 여주인공 이와가 북리의 기녀임을 밝혀준다: “생이 한번은 동쪽 시장에 놀러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평강리의 동문으로 들어가서.....집 한채가 보였는데 대문과 정원은 그리 넓지 않았으나.....(嘗遊東市還, 自平康東門入.....見一宅, 門庭不甚廣....)”

12) 孫棻, 《北里志·海論三曲中事》.

이 되었다”<sup>13)</sup>고 말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당나라 시대의 기녀는 4-5세에 가모에게 위탁된다는 사실에 비추다면 그 당시 이와의 나이는 적어도 25세 전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리지》에는 위에서와 같이 “기녀들은 모두 서른 안쪽의 나이였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곧 이와가 현역 기녀노릇을 할 수 있는 연한이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남성서사 속에 숨겨진 또다른 부분이 드러난다. 즉 남성주인공과 재회한 후, 이와의 돌변한 태도는 바로 기녀인 이와의 상황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리한 이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비록 현재 자신이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하나 세월이 흐르면 외모는 아무래도 이전만 같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젊은 날 이와 자신이 못남성에게 받았던 선망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모가 되거나 지방에서 파견나온 장군의 시중을 드는 것 뿐이었다. 따라서 이와는 지난 날 자신이 내쳐 버린 남자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을 때 가모나 첩이 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를 곁에 두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는 이미 남성주인공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가 재능이 있는 남성이고 그의 집안이 명문가임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sup>14)</sup> 만일 자신이 상대남성을 잘 구슬리고 보필하기만 한다면 상대남성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과거에 합격할 것이고 일이 제대로만 풀리면 자신의 신분 역시 한갓 가모나 첩이 아닌 관료의 아내로 상승할 수 있음을

13) 自行簡, 같은 책: “제가 양녀가 된 후로 지금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某爲婁子, 迨今有二十歲矣).”

14) <李娃傳>에서 이와는假母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서로 계략을 써서 그를 버리고 내쫓았으니 이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다……천하의 사람들이 이 모두 저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의 친척들이 조정에 가득한데 일단 권세있는 사람이 이 일의 본말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화가 곧 미칠 것입니다.(且互設詭計, 捨而逐之, 殆非人行……天下之人, 盡知爲謀也. 生親戚滿朝, 一旦當權者熟察其本末, 禍將及矣.)”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와는 상대남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돌변한 행동을 단순히 상대남성에 대해 못다한 애정 때문이라고만은 단언할 수 없다.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명예를 중요시 하는 남성주인공의 집안에서 아들을 보필하여 과거급제를 시킨 상대여성을 그냥 버려두지만은 않을 것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試論이며 가정일 뿐이다. 실제로 이와는 전혀 앞뒤 생각을 하지 않고 진심어린 후회와 속죄의 의미로 무조건 남성주인공을 돌보았을 수도 있다.<sup>15)</sup> 하지만 이같은 시론의 방식으로 <이와전>을 바라본다면 남성서사의 틀로 <이와전>을 독해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남성을 보필하는 여성, 유교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여성인 이와에서 젠더(Gender) 차원의 性의식에 입각한 신분의 상승을 욕망하는 여성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의 진정한 욕망은 남성서사의 장치 속에서는 식별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로지 '저항하는 독서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부분이다.

당대 傳奇 가운데 <이와전>과 유사하게 기녀를 여주인공으로 다룬 또 다른 작품에는 <霍小玉傳>이 있다. <곽소옥전>은 기본적으로 <이와전>과 비슷한 서사의 전개를 지닌다. 하지만 <곽소옥전>이 <이와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와전>이 해피엔딩으로 끝남에 비해 <곽소옥전>은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곽소옥전>의 여주인공이 상대남성에게 보인 태도에 연유하는 것이다. 기녀인 霍小玉은 이와와는 다르게 상대남성에게 혼인을 요구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그녀는 과거에 급제한 후 자신을 버리고 이미 명망높은 집안의 딸과 결혼해 버린 남성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었고 죽어서는 귀신이 되어 상대남성을 계속 괴롭혔다. 결국 <곽소옥전>의 남성주인공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아무

15) 전통적인 <李娃傳>의 해석방식은 여주인공 李娃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서 남주인공을 다시금 보필하였다는 견해이다. 또한 최근에는 여주인공 이와가 자신의 신분이 남주인공에 걸맞지 않음을 이미 깨달았기에 남주인공의 전도양양한 출세를 위해 남주인공을 일부러 버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王珏 著, 《唐宋傳奇說微》(成都, 四川教育出版社, 2003), 130-135쪽 참조.

런 이유없이 자신의 아내를 괴롭히는 가혹증적인 상태가 되어 버렸다.<sup>16)</sup> 아마도 <곽소옥전>과 <이와전>을 접한 독자들은 남성주인공의 상반된 결말을 곽소옥과 이와가 지닌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남성을 구속하지 않는 이와의 태도에 더욱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 곽소옥에 대해서는 '남성을 망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대의 역사를 통해서 기녀가 관료의 부인이 되었거나 혹은 건국부인과 같은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대의 남성작자와 독자들은 건국부인이 된 기녀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녀의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따라서 이와는 일개 기녀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될 만한 본보기로 여겨졌으며 그녀의 진짜 욕망은 남성의 목소리 속에 가리워져 버린 것이다.

#### IV. 나가며

본 논문은 妓女 李娃의 이야기를 서술된 그대로 믿지 못한다. 그녀의 發話, 그녀의 돌변한 태도, 그리고 그녀가 명문가의 며느리가 된 후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들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 그 뿐 아니라 그녀가 아들 넷을 낳아 모두 관리로 키웠으며 泮國夫人에 봉해졌다는 모든 언급을 의심한다. 하지만 만일 이와라는 영악한 기녀가 자신이 버린 한 남성을 내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이와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와만의 계산과 욕망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이에 따라 이상과 같은 논

16) 이와 같이 남성주인공이 사디즘(Sadism)적으로 변화된 것은 霍小玉으로 인한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자아의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곧 남성주인공이 이드(Id)와 초자아(Super Ego) 간의 괴리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압력과 가책에 따른 불안을 자기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타인, 즉 자신의 부인이나 첩들에게 돌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남성주인공의 사디즘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投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를 전개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李娃傳>은 唐代 이후로도 계속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이었다. 그것은 중국 明나라때에 이르면 <玉堂春落難逢夫><sup>17)</sup>라는 제목의 소설로 개작되었고 이어서 17세기 朝鮮에서 <王慶龍傳>이라는 제목으로 변안되었다.

조선시기의 소설인 <왕경룡전>은 기본적으로는 <이와전>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우선 <왕경룡전>에서는 여주인공인 기녀가 假母와 짜고 남주인공을 내치지 않는다. 오히려 <왕경룡전>의 여주인공은 재물이 떨어진 남주인공을 내치는 가모에 대해 불가항력적으로 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이와전>에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던 여주인공의 性的인 순결이 <왕경룡전>에서는 강조되어있다. 즉 <왕경룡전>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 헤어진 후, 끊임없이 자신을 탐하는 재물 많은 남성과 가모의 계략에 항거하여 남주인공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지킨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변안작의 특징은 <왕경룡전>의 서술에 개입된 조선시대 남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에서 유교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발생하였다. 따라서 <왕경룡전>은 또다른 남성작자의 시각에 의해 변용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서사 속 여주인공의 욕망은 여전히 은폐된 채 존재하는 것이다.

#### <參考文獻>

魯迅, 《唐宋傳奇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3.

17) <玉堂春落難逢夫>는 <李娃傳>과 <王慶龍傳>의 중간자적인 위상을 지닌다. 이 작품은 왕경룡전에서와 같이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녀인 여주인공이 남주인공과 헤어진 것이 假母의 계략에 의해서라고 진술된 점은 <이와전>과는 변별되는 점이다.

-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1.
-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北京: 東方出版社), 1993.
- 董乃斌 著, 《唐帝國的精神文明》(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孫棨 著, 楊家駱 主編, 《唐國史補等八種: 北里志》(臺北: 世界書局), 1968.
- 楊鴻年 著, 《隋唐兩京坊里譜》(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王珏 著, 《唐宋傳奇說微》(成都: 四川教育出版社), 2003.
- 汪辟疆 校錄, 《唐人小說》(香港: 中華書局), 1987.
- 姚平 著, 《唐代婦女的生命歷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李昉 등 모음, 김장환 · 이민숙 外 옮김, 《태평광기20》(서울: 學古房), 2004.
- 레나 린트호프 지음 · 이란표 옮김, 《페미니즘 문학 이론》(서울: 인간사랑), 1998.
- 박찬기 외 지음, 《수용미학》(서울: 고려원), 1992.
- 全寅初 著, 《唐代小說研究》(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팸 모리스 지음 ·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서울: 문예출판사), 1999.
- C. G. 음 외, 《음 심리학 해설》(서울: 신영사), 1989.
- P. B 에브레이저 · 배숙희 역,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서울: 三知院, 2000.
- 近藤春雄, 《唐代小說研究》(東京: 笠間書院), 1967.
- 宋河俊, <王慶龍傳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碩士論文, 1998.
- 崔眞娥, <견고한 원전과 그 계보들 -동아시아 여성 쓰기의 역사>, 《中國語文學誌》, 中國語文學會, 2001, 第9輯.
- Curitis P. Adkins, The Supernatural in T'ang Ch'uan-ch'i Tales: An Archetypal View, Ohio University(Ph. D.), 1976.

### < 中文提要 >

唐傳奇是立足于儒教倫理觀念的男性作者的敘事文學, 唐代士人以傳奇爲

‘行卷’，‘溫卷’。‘行卷’，‘溫卷’就是請託性文章而已。傳奇里包含了唐代男性知識分子思想和感情，而且以男性為“豫想讀者”，所以傳奇中敘述的事都是經男性角度矯正過的，這必然會遮蔽其中所涉及的女性的觀點和欲望。〈李娃傳〉就是這樣一部典型的作品。從女性學的視覺來看，妓女李娃很可能是一位立足于社會性的性意識(Gender)上的有提高自己身分的欲望的女性，而在男性敘事的框架中，她不過是一位悔過自新幫助男性，體現儒教意識形態的女性。她本身的欲望被隱藏在男性敘事中不被識別的部分，這個部分只能通過“抵抗性讀書”才能暴露。本論文根據唐代筆記《北里志》，考察了唐代妓女的生態。然後才結論到了妓女李娃為了自己生活的幸福和穩定的身分，重新幫助男主角。而且李娃試圖了自己身分的上昇。唐代以後〈李娃傳〉一直是一部經久不衰的作品，到了中國明代被改編為〈玉堂春落難逢夫〉的小說，到了17世紀的朝鮮被改寫為〈王慶龍傳〉。基本情節上〈王慶龍傳〉和〈李娃傳〉相似，但〈王慶龍傳〉特別強調了女主腳的性純潔問題。這是經歷了‘壬辰倭亂’和‘丙子胡亂’的朝鮮，為鞏固立足為儒教的社會秩序的社會氛圍下發生的。因而〈王慶龍傳〉描述了另外一種男性作者所改編的女主腳的面貌，並且在敘事中女主腳的欲望仍然以被隱藏的形態而存在。

주제어: 李娃傳, 唐代, 傳奇, 男性敘事, 慾望, Ideology, 妓女